GLOBAL
EQUITY

2026. 4. 24

리서치센터 리포트
바로가기

글로벌주식팀

이영진 Senior Analyst, CFA
youngjin91.lee@samsung.com

# 오픈AI (OpenAI, 비상장)

## GPT-5.5, 모두가 쓸 수 있는 프런티어 AI

- 오픈AI는 GPT-5.5를 통해 AI 산업 내 선도적 지위를 되찾는 모습. 컴퓨팅 캐파 이슈 없이 모두가 접근할 수 있는 프런티어 AI 강조
- GPT-5.5는 엔비디아 GB200 기반 학습 및 서빙. GPT-5.4와 동일 응답 속도를 유지하면서 더 적은 토큰으로 동일 작업 수행. 향후 모델 개선 사이클 지속 기대

▶ 종목 정보

| 상장 예정일 | 미정 |
|---|---|
| 기업 가치 | 8,520억 달러(26년 4월) |
| 매출액(ARR 기준) | 250억 달러(26년 2월) |
| 국가 | US |
| 산업 | Software |

## WHAT'S THE STORY?

**GPT-5.5로 다시 선두에:** 오픈AI는 GPT-5.5를 발표하며, 프런티어 AI 경쟁에서 다시 앞서는 모습을 보여줬다. GPT-5.5는 실제 업무(real work)에 최적화된 차세대 플래그십 모델로 정의된다. 단순 답변형 AI를 넘어 복잡한 작업을 스스로 계획, 실행, 검증하는 에이전트형 AI로의 발전 방향성이 기반이다.

코드 작성 및 디버깅, 리서치, 데이터 분석, 문서 작성, 스프레드시트 생성, 소프트웨어 조작 등 전반적 업무 자동화 능력이 강화되었다. 특히 에이전트형 코딩, 컴퓨터 활용, 지식 노동, 초기 과학 연구 분야 등 현재 AI 산업 내 가장 주목받고 있는 적용 분야의 성과를 전면에 내세웠다. 기반에는 장기 문맥 유지, 다단계 작업 처리, 툴 연동, 오류 수정 및 재시도 능력의 개선이 있다.

다만 벤치마크 비교에서 엇갈린 시각이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SWE-Bench는 앤스로픽 Claude Opus 4.7 대비 부족한 모습이다. 반면 Terminal Bench, CyberGym은 오히려 앤스로픽 Mythos에 필적하는 수준이다. 최근 모델 출시 트렌드 상 모든 벤치마크에서 경쟁 모델을 압살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시각에 따라 "Opus 4.7 대비 부족하다"와 "공개되지 않은 Mythos를 벌써 따라 잡았다"의 해석이 모두 가능하다. 외부 평가에서는 모델 비교에 대표적으로 활용되는 Artificial Analysis Index 기준 60점으로 기존 오픈AI-앤스로픽-구글의 3자 공동 1위 구도(57점)을 깼다. ARC-AGI-2, Vending Bench, LiveBench 등에서도 경쟁 모델 대비 높은 성능을 보여줬다.

단순 벤치마크 외 실체감도 중요한 부분이다. 응답 간결성과 말투 변화 등에 따른 대화 능력 자체 개선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다수다. 과거 GPT-5를 업데이트하며 기존 4o의 친근한 답변 스타일 변화에 무수한 비판에 직면했던 사례를 떠올리면 이번에는 반대로 긍정적 변화다. 특히 초기 테스터들은 Pro 버전에 대해 답변이 포괄적이고, 구조적이며, 정확하고, 유용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개인형 에이전트 시장 공략을 노리는 측면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API 가격은 올렸지만, 추론 효율성을 극대화:** GPT-5.5의 중요한 특징은 GPT-5.4와 동일한 응답 속도(latency)를 유지하며, 더 적은 토큰으로 동일 작업 수행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모델 성능 뿐 아니라 효율성이 동시에 상승하는 국면이다. 추론 효율 개선에는 엔비디아 GB200 및 GB300 NVL72 인프라에 맞춰 공동 설계되고 학습되고 서빙된다는 점이 중요하다. 또한 Codex는 GPT-5.5의 인프라 최적화 코드 작성에도 적극적으로 활용되었다. 실제 운영 트래픽 분석 기반 맞춤형 휴리스틱 알고리즘 작성 및 로드밸런싱을 통해 토큰 생성 속도는 20% 이상 향상되었다.

API(출시 예정) 가격은 GPT 5.5가 인풋 $5 및 아웃풋 $30이고, GPT-5.5 Pro는 인풋 $30 및 아웃풋 $180이다. API 가격은 GPT-5.4(인풋 $2.5 및 아웃풋 $15) 대비 2배 수준이다. 하지만 AAI 평가에서 토큰 사용량은 40% 감소해 평가 수행에 소요된 총 비용은 20% 상승에 그쳤다. 추론 효율성 개선을 통해 유저 비용 측면에서 체감되는 변화를 제한하며, API 가격 상승을 통한 마진 개선을 추구할 수 있다.

**엔터프라이즈 AI 시장의 경쟁, 중요한 것은 컴퓨팅 캐파:** 현재 프런티어 AI 기업은 모두 엔터프라이즈 분야 확장을 노리고 있다. 오픈AI와 앤스로픽은 사모펀드 JV 설립과 컨설팅 기업 협력을 포함해 다양한 방향성을 추구하고 있다. 구글 Cloud Next '26도 이러한 방향성을 재확인하는 이벤트였다.

오픈 AI 내부에서는 85% 이상이 매주 Codex를 사용한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뿐 아니라 재무, 커뮤니케이션, 마케팅, 데이터 사이언스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주요 파트너인 엔비디아에도 GPT-5.5 기반 Codex를 조기 배포해 1만 명의 엔비디아 직원이 다양한 업무에서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는 시작일 뿐이다.

앤스로픽은 연초 이후 AI 코딩 능력 기반으로 Claude Code와 Claude Cowork의 흥행에 성공했고, 강력한 Mythos 모델까지 선보이며 산업 내 입지를 강화했다. 하지만 최근 발표한 Opus 4.7은 이전 버전인 Opus4.6보다 부정적 평가가 지배적인 상황이고, 컴퓨팅 캐파 부족에서 발생하는 노이즈가 지속되고 있다(서비스 이슈, 성능 저하, 정책 변경 등)

샘 올트먼은 GPT-5.5. 출시 이후 X 포스팅을 통해 빠른 출시 사이클을 강조했다. 3/5일 출시한 GPT-5.4에서 신규 모델 업데이트까지는 2달이 걸리지 않았다. 또한 점진적 (iterative) 배포 전략을 통해 추가적 모델 개선도 시사했다. 다음 버전 출시 전까지 모델과 제품 단의 업데이트가 지속될 것이다.

Codex의 WAU(주간 활성 사용자)는 2주 만에 100만 명을 추가해 400만 명을 돌파했다. 100만 명 돌파 시마다 사용량을 리셋해주는 오픈AI의 자신감도 캐파에서 비롯한다. GPT-5.5와 GPT Image 2.0의 발표는 Codex의 성장 속도를 추가로 가속화할 것이다.

오픈AI는 "많은 사람들이 AI를 폭 넓게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가장 효율적인 모델, 가장 효율적인 추론 스택, 가장 많은 컴퓨트 확보를 강조하고 있다. 에이전틱 AI를 위한 글로벌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30년까지 30GW 컴퓨팅 캐파 확보 계획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

**주요 모델 벤치마크 비교 표**

| 카테고리 (벤치마크명) | GPT-5.5 | Opus 4.7 | Opus 4.6 | Gemini 3.1 Pro | Mythos Preview |
|---|---|---|---|---|---|
| 에이전트 코딩<br>(SWE-bench Pro) | 58.6% | 64.3% | 53.4% | 54.2% | 77.8% |
| 에이전트 코딩<br>(SWE-bench Verified) | - | 87.6% | 80.8% | 80.6% | 93.9% |
| 에이전트 터미널 코딩<br>(Terminal-Bench 2.0) | 82.7% | 69.4% | 65.4% | 68.5% | 82.0% |
| 다양한 학문 추론 능력<br>(Humanity's Last Exam) | 41.4%<br>no tools (Pro)<br>52.2%<br>with tools (Pro) | 46.9%<br>no tools<br>54.7%<br>with tools | 40.0%<br>no tools<br>53.3%<br>with tools | 44.4%<br>no tools<br>51.4%<br>with tools | 56.8%<br>no tools<br>64.7%<br>with tools |
| 에이전트 검색<br>(BrowseComp) | 84.4% | 79.3% | 83.7% | 85.9% | 86.9% |
| 확장된 도구 사용<br>(MCP-Atlas) | 75.3% | 77.3% | 75.8% | 73.9% | - |
| 에이전트 컴퓨터 사용<br>(OSWorld-Verified) | 78.7% | 78.0% | 72.7% | - | 79.6% |
| 에이전트 재무 분석<br>(Finance Agent v1.1) | 61.5% | 64.4% | 60.1% | 59.7% | - |
| 사이버보안 취약점 재현<br>(CyberGym) | 81.8% | 73.1% | 73.8% | - | 83.1% |
| 박사급 추론 능력<br>(GPQA Diamond) | 93.6% | 94.2% | 91.3% | 94.3% | 94.6% |
| 시각 추론 능력<br>(CharXiv Reasoning) | - | 82.1%<br>no tools<br>91.0%<br>with tools | 69.1%<br>no tools<br>84.7%<br>with tools | - | 86.1%<br>no tools<br>93.2%<br>with tools |
| 다국어 질의 응답<br>(MMMLU) | 83.2% | 91.5% | 91.1% | 92.6% | - |

자료: 각 사

## Compliance notice

- 본 조사분석자료의 애널리스트는 2026년 4월 23일 현재 위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2026년 4월 23일 현재 위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기관투자가 등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 삼성증권

**삼성증권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삼성전자빌딩)
Tel: 02 2020 8000 / www.samsungpop.com

**삼성증권 Family Center:** 1588 2323

**고객 불편사항 접수:** 080 911 0900

Member of
Dow Jones
Sustainability Indices
Powered by the S&P Global CSA